

## 꾸준한 약복용으로 면역력회복



임 춘 수 / 마포구보건소 방역팀장

### 에이즈 감염인 관리현황

1985년 12월 한 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 2000년 12월말 기준 에이즈 감염자는 1,280명으로 늘어났다. 1,280명은 발견되어진 에이즈 감염자일 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감염자는 수천명 내지 수만명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이즈 감염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낸다. 감염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낼 뿐이다.

1996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마포구보건소에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상담을 실시한 사례가 22건에 이른다. 애석하게도 2명은 결핵과 폐렴으로 유명을 달리한 예도 있었다.

그들은 '97년 10월경부터 사용하고 있는 3제 요법(AZT, 3TC, Crivivan)에 의한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마포구보건소에 통보된 에이즈 감염인 9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전원이 동성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동성애 = 에이즈 감염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동성애를 한다고 전부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성접촉 보다는 감염확률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동성애에 대하여 좋고 나쁨을 떠나 동성애자들은 파트너를 너무 손쉽게 자주 바꾸어 생활하는 습관이 있다. 그들은 위험한 성문화와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동성애에 국한된 성문화

가 아닌 이성간의 무분별한 성접촉에 의한 것도 포함한 것이다. 성향락 산업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도 번창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에이즈 감염은 고등학교 생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고루 퍼져있다.

### 성공적 관리사례-감염인 A씨

HIV/AIDS 감염은 국내에서의 문란한 성접촉에 의하여 감염되고 있으나, 외국에 자주 나가는 사업가, 공무원, 여행객들 중 외국에서 은밀한 성접촉을 갖은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 고민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들 중 외국에서 성접촉 후 HIV/AIDS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은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A씨는 1997년 8월경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최종검사결과 국립보건원으로부터 HIV항체 양성으로 통보되었다. 그는 사업상 외국에서 손님접대를 할 기회가 자주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여성(러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성접촉을 갖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첫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에이즈 감염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여부 확인을 위하여 재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여 그에게 수락을 받아 HIV항체 확인검사 및 면역검사를 실시하였다. HIV항체 확인검사 양성, 면역검사 중 CD4림프구 수가 472/mm<sup>3</sup>로서

에이즈관리업무지침에 의하면 500이하/ml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는 수치이므로 그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여 주고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는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드리고 병원에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에이즈 전문진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주었다. 1997년 10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마침 그 당시에 3제요법을 실시할 수 있는 약제가 국내에 수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1997년 12월부터 3제요법을 실시하였다. 다행히도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약을 복용하는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 치료 당시 HIV-RNA PCR Quantitation 17,987/Copies/ml Plasma이었으나, 3제요법 시작 8주 후에는 HIV-RNA PCR Quantitation 500이하/Copies/ml Plasma로 치료효과가 90%이상이었다. 그는 술과 담배도 끊은 채 3년간 약을 복용하여 CD4T림프구 수는 780~840/mm<sup>3</sup>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2000.8월 검사결과 CD4/CD8비율이 1.03까지 증가되어 치료가 가능하리란 확신을 갖게되었다. 3년간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약을 복용한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약을 복용하면서 약에 대한 부작용이 몇 번 있었다. 얼굴이 검게 그을린 것과 같이 까맣게 변하였으며, 간 기능을 검사하는 GOT, GPT가 높아져 2주간 약 복용을 중단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 맺는말

위의 사례와는 달리 대다수의 에이즈 감염인들은 대인기피증으로 친구까지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원하고 있다.

첫째, HIV/AIDS감염인의 비밀보장이다. HIV/AIDS감염인은 보건소나 민간단체, 병원 등



- ▲1999년 이후 마포구보건소에 통보된 9명의 감염인 모두가 동성애로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 ▲적극적인 약복용 준수는 면역력회복을 가능케한다.

에서 인적사항 등의 비밀유지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분노출을 제일 두려워한다.

둘째, 국비지원 진료비의 지급기일 단축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방비는 1개월이내에 지급되지만 국비지원금은 너무 늦게 지급된다고 한다.

셋째, 의사의 친절한 상담이다. 근엄한 태도의 의사보다는 형님같고 어머니같은 자상한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원하며, 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약에 대한 부작용, 감염인이 의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투약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등등 세심한 사항까지도 묻는 배려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원하고 있다. A